

성신강림 대축일

제 1 독서 : 사도 2, 1-11

제 2 독서 : 1고린12,3b-7,12-13

복 음 : 요한 20, 19-23

순정이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요한 20, 22-23).

강론

소리

“성령의 시대는 곧 은혜의 시대”

한 병 헌 신부 / 여산 천주교회

우리들은 대개 다가오는 성신강림 대축일을 지내면서 천주교회 안에서 ‘성신의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이 질문에 우리들은 쉽게 요한복음 16장 15절-16절(“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말씀을 들어 우리 협조자라고 서슴없이 답할 것이다. 하나 천주교회 안에서는-성령 세미나 운동을 하는 사람을 예외로 하고-개신교회와는 달리 성신의 역할이 그리 부각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든다.

성신에 관한 언급을 하자면 먼저 오늘 제1독서 말씀인 사도행전 2장 1절-13절 말씀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순절에 사도들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뜨거움을, 역동감을 느낀 것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180도 변화한 사도들은 그들의 방에서 나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한다.

흔히들 예수 부활 이후 시대를 성령의 시대 곧 은혜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전까지는 율법과 계명이 지배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인간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은혜의 시대요, 참자유와 해방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 참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으나 아래와 같이 성령을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 표현이 아닐까 싶다. 곧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림자와 같이 별로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또 우리가 악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한 생활을 하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 안에 그 어떤 시련이나 난관이 닥쳐도 우리는 항상 희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아니 희망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존재들인 것이다. (꼭 이번 주간에 고린도 전서 12장을 마음 열고 한번 읽을 것)

“유월의 피땀”

오월의 아픈 기억은 유월에 이어지지 않았으면 싶다. 그 막강한 위력의 대중매체도 해마다 덧나는 광주와 아픔 같은 것을 자세히 전해주지는 않는다. 사회의 혼란은 한 쪽에서만 아파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증폭되어 길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정치는 술수를 써가며 적당히 시간 속에 굴러가고 남북 통일문제는 묘한 사건이 터지면서 서로간에 구태의연한 옛버릇이 되풀이 시작되었다. 경제는 위태위태하고 성적 비판 투신자살은 끊이지 않고 교육현실을 고발하는 날들이 지나가는데 특별히 손을 쓸 무슨 수는 없어 보인다.

희망이란 앞날을 두고 사는 인간의 자기 선택책임일까?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내일이 희망 때문에 기다려진다고 말해도 좋다.

영원에서 나와 지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 한 고비에 떠 있는 인간과 그의 삶은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는 역사가 끊어 있다.

오늘 우리가 자신과 사회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은 시간과 역사가 자기와 사회의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지식을 책임지듯이.

이런저런 예측도 하면서 울분을 토로해가면서 책임도 느끼면서 사회인으로서 민족구성원이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유월에 들어서 있다.

피비린내나는 지구촌 저쪽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눈을 돌려 실은 그들이 내 식구나 나를 것이 없음을 되새겨볼 일이다.

더 뜨거워지는 날들이 땀을 내게 하는 것은 고마운 섭리 중에 하나다. 사람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겸손해질 가능성이라도 배당받는 셈이니까. ☐

순정이 신책





“예수 성심 성월”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이다. 예수 성심 성월에는 특별히 예수 성심께 자신과 가정을 오롯이 봉헌하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 예수 성심을 공경하며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해야겠다.

1. 예수 성심 성월의 유래

예수 성심 공경은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퍼져 있었다. 성월의 관습이 생겨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생겨났고 그 정신도 여러 세기를 거치는 동안 점점 뚜렷하게 되었다. 11-12세기 경에 이미 성베네딕도수도원과 치즈테르시안수도회에서 예수 성심께 대한 기도생활이 열심으로 행해졌고, 15-16세기를 거쳐 많은 수덕 신비가에 의해서 실천되었고 퍼져 나갔다. 결정적으로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신심이 교회 안에 꽃피게 된 것은 성녀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코크(1647-1690)에게 예수께서 친히 그 성심을 계시해주셨고 가르침을 주신 후부터였다. 이때 예수께서 계시하신 메시지는 첫째, 예수 성심이 이룩한 무한한 사랑에 의탁하는 신앙심을 피뜨려야 한다. 둘째, 첫금요일에 보상을 위한 영성체와 기도시간을 가져야 한다. 셋째, 예수 성심을 기리는 특별한 축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교황 비오 9세가 1856년 예수 성심 축일을 전교회의 축일로 제정하고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행위에 대한 은사를 허락하였으며, 1899년 교황 레오 13세는 전세계를 예수 성심께 성대히 봉헌하였다.

한국에서는 1888년 6월 8일 7대 조선교구장 블랑(Blanc) 주교에 의해 한국교회 전체가 예수 성심께 봉헌되었고, 블랑 주교의 봉헌은 그후 1899년 9월 17일 성모 칠고 축일을 기해 교황 레오 13세의 정신에 따라 제8대 조선교구장 뮈텔(Mutel) 주교에 의해 경신되었다.

2.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행위

예수 성심 성월의 신심행위에는 성시간, 신자들의 기도와 희생, 보속 등이 있고 교회에서는 특별히 성월기도로써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를 바칠 것을 권장한다.

1) 예수 성심 봉헌

예수 성심 봉헌은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의 측면에서

감성적, 이성적 사랑의, 그리고 신성(神性)의 측면에서 신적인 사랑, 즉 사랑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심장을 봉헌의 직접적인 대상으로서 인격 전체를 예배하는 신심행위이다. 그 내용은

- (1) 그리스도의 구속 사랑을 모방하고
- (2)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을 봉헌하며
- (3)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함으로써 죄의 보속을 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신강림 후 둘째 주일 다음 금요일에 교황 비오 12세가 권고한 보속행위를 하면서 예수 성심 축일을 지내고, 매주 첫금요일에 보속의 정신으로 미사 참여, 영성체, 성시간을 가지며, 그리스도왕 축일마다 자신의 봉헌, 예수 성심 호칭 기도, 가정 봉헌 기도를 바친다.

2) 성시간

성시간은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의 하나으로써 한 시간 동안 특별히 겐세마니에서의 예수의 고통을 묵상하며 지내는 것을 말한다. 성시간은 성녀 말가리다에 의해 시작되었고, 1829년 프랑스의 파레르모니알에서 예수회 신부 로메르 드브로스에 의해서 이 신심을 전파하기 위한 단체가 창설되면서 널리 퍼졌다.

성시간은 성체 헌시와 예수 수난에 대한 묵상, 장엄기도, 성가, 성체강복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동체에 의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3.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의 바른 정신

이 신심의 참뜻은 예수의 구원적인 그 사랑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애정을 갖고 성심을 공경하며 시는데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의 인성이 갖고 있는 사랑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사랑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서도 예수는 인간들을 구하고자 하는 신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수난당하실 때 그분의 마음은 한없이 커다란 고통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애통해 하셨다. 이러한 예수의 고통을 우리가 죄를 통회하고 보속함으로써 감해드리고 위로해드린다는데 이 신심의 뜻이 있는 것이다.

치질 전문 치료
서울 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 75-0550

약혼, 결혼, 회갑예물, 목주반지 제작
금보장금방
정금태(프란치스코)
채현옥(마리아)
전주 풍남문 앞
전화 88-4989, 자택 88-4988

조주은 치과 의원
이전 확장 개원합니다.
(6월 초)
조주은(헬레나)
이종민(요셉)
중앙성당 맞은편(히기석내과 건물)
☎ 87-8291

잠 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 매년 3월 24일 춘계 주교회의에서는 1965년 이후 시행되어오던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변경하고, 모든 신자들은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제정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문’(메일미사 6월호 158면)을 정성껏 바치며, 오는 6월 21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주제로 9일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하였다.

- 6월 13일-반성(분단 상황에 대한 무관심에 대하여)
- 6월 14일-용서(불신, 증오, 미움 등 적개심을 버리자)
- 6월 15일-화해(참된 이해와 형제애)
- 6월 16일-일치(민족의 동질성과 신앙의 일치를 위해)
- 6월 17일-북한 동포를 위하여
- 6월 18일-북한 교회를 위하여
- 6월 19일-북한 선교를 위하여
- 6월 20일-평화통일을 위하여
- 6월 21일-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 세계가 하나되어가는 이 시대에 이적도 외세에 의해 분단의 아픔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국내의 반통일 세력의 회개, 문규현 신부와 통일을 위해 일하다가 갇힌 이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교 구 소 식

※ 신앙강좌 : 6월8일(월) 오후8시-10시 중앙 성당, 주제-종말론,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강사-민병섭 신부, 회비-1,000원(교제대), 문의-사목국 성서부.

1. 교구장 본당 사목방문 : 6월12일(금) 오전10시-상관 성당, 오후2시-용머리 성당.
2. 축! 견진 : 6월13일(토) 오후3시 송천동 성당, 14일 오전10시30분 서학동 성당.
3. 교도소 재소자 견진성사 : 6월10일(수) 오후1시30분, 후원 회원 참석바랍니다.
4. 사제 평의회 : 6월9일(화) 오전10시 교구청.
5. 예비 신학생 모임 : 6월14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3층.
6. 사랑의 다리 릴레이 : 6월8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7. 젊은이를 위한 나눔 묵상회 : 7월4일 오후3시-5일 오후5시 친호 피정의 집, 대상-대학생 및 일반청년(남녀), 강사-박종근 신부, 회비-17,000원, 집수-6월8일~22일 선착순 60명, 문의-사회복지회(84-5290).
8.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봉사 : 6월13일(토) 오전10시 사회복지회, 각 협의회 회장단.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6월15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제목-엘레니

※ 축! 명명 : 11일(성바르나바) 박영규 신부님, 13일(성안토니오) 권영균, 양제철 신부님.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사기 전에 생각하라

이것이 필요한가? 너무 많이 포장되지는 않았는가? 오래 건넬까? 사려깊은 구매는 쓰레기 문제를 근원부터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십이(983) 김병오



신축 기금 마련 바자회

푸짐한 상품과 별미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기간 : 6월5일-8일(4일간)
- 장소 : 용머리 천주교회 (효자동 주공3단지) ☎ 87-0441

종합광고물 제작업체 무지개 광고기획

경리사원 모집

- 여상 출 • 미혼 여성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 (0652)252-0207~8
- 대표 김 창 식(스테파노)

경동보일러 정주대리점

- 난방 자재 일정 도산매
- 유 태 수(안드레아)
- 이 영 순(엘리사벳)
- ☎ (0681)537-5800

고급 적벽돌 생산업체 (환원벽돌, 변색벽돌, 미다시)

- 제1공장 : 성심연와 (0658)546-4174
- 제2공장 : 대건요업 (0658)546-7080
- 본 사 : (0653)51-0488
- 대표 차 계 철(베드로)

사무용 가구 (주) 삼 신 전북특약점

- 금고, 목·철제책상, 의자, 쇼파, 컴퓨터 책상
- 중앙시장 뒤 노벨탕 옆
- ☎ 253-3361~2
- 정 광 호(안셀모)

황수경 신부인과

- 여 의 사
- 산부인과 전문의
- 황수경(크리스티나)
- 이승렬(엘 리 아)
-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 골목
- ☎ 84-7272

효소의 명품 보사허 제 99호, 품목허 제99-1

- 팔보종합아채효소
- 건강을 가꾸어드립니다
- 전북지사 ☎ (0652)74-1161
- 금암동 로타리 KBS 중간
- 손석중(안셀모), 김제철(안젤라)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승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6월은 예수성심성월

※ 오늘은 성신강림대축일입니다.

1. 예수승천대축일 행사에 협조해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축"세례: 35명 하느님의 자녀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 견진교리: 16일~19일 오전9시30분 오후8시
4. 노승 은혜의 밤: 8일 저녁11시~새벽5시
5. 9일 어머니미사 없음: 사제평의회 관계로 새벽5시30분미사
6. 부녀회 월례회: 9일 오전 10시30분
7. 남전주 중고생 체육대회: 오늘 전주교육대학교에서
8. 금주청소: 중노23,24반 차주청소-중노25,26반
- 지난주 봉헌금: 896,520원 □ 교무금: 1,083,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삼 인

1. 견진교리: 15일(월)-19일(금) 오후7:30
2. 성시간: 11일 저녁11:30분
3. 회합: ①사목회(저녁미사 후) ②대건회(공식미사 후) ③구역분과회(9일 오전10시) ④안나회(11일 오전10시) ⑤여성분과회(13일 오전10시) ⑥요셉회(14일 공식미사 후) ⑦전례자모임(14일 공식미사 후) ⑧꾸리아(14일 오후2시) ⑨청년회(14일 저녁미사 후)
- 금주전례: 오교성 독서-한광석씨 부부 봉헌-조종업씨 가족
차주전례: 조옥례 독서-강익구씨 부부 봉헌-신재근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94,830원 □ 교무금: 1,105,6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 오늘은 성신강림대축일: 숨은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1. 꾸리아: 공식미사 후
2. 교무금 납부의날: 매월첫주(오늘)
3. 본당 사목방문: 12일(금) 오전10:00 사목회임원 참석바람.
4. 성서읽기: 여호수아1장~24장
5. 금주청소: 천사들의모후Pt
6. 금주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양대환 ②김갑자
봉헌-김단오,김중석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미숙 독서①이육봉 ②김순이
봉헌-김광열,황상호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04,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6월은 예수 성심성월)

1. 회의: ①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늘오후2시 ③성심회-6월13일(토)오후2시 ④프란치스코3회-다음주일오후2시
2. 알림: ①견진교리-6월8일(월)은 오후8시 9일~12일은 오전10시와 오후8시반으로 나눠서 교리를 실시하오니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②견진성사-6월14일(일)오전10시30분(견진자와 대부모는 30분전에 집결하시기바랍니다) ③중고학생 남전주지구 체육대회-오늘 오전9시부터 교육대학 교정에서 있으니 부모님과 사목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 주시기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839,100원 □ 교무금: 532,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나눔과 헌신의 축제

용머리 성당 건립 기금 마련 바자회.

사랑으로 하나됩니다.

□ 지난주 봉헌금: 647,000원 □ 교무금: 590,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영 태

※ 오늘은 성신강림대축일

1. 금주: ①남전주지구 중·고등학생 체육대회(전9시,교육대학교 운동장) ②윤드레아(공식미사 후) ③계속글라리형제회(후1시30분) ④구역봉사자모임(후7시)
2. 민인수수녀님 피정: 8일~18일까지(맑은기도바람)
3. 자모회 야유회: 9일(화) 전7시30분 7일까지 신청바람
4. 돈·보스코회: 10일(수)후7시
5. 반모임: 9일~12일 반별로 실시바람
6. 조당자할동면담 및 훈배: 지참서류-호적등본,세례증명서.면담-14일 후2시, 훈배-21일 후2시, 미리 사무실에 접수
7. 사순절폐지저금통,아직 가지고 있는 가정은 봉헌바랍니다.
8. 처주: ①자모회(전10시) ②일치의모후Cu(후2시) ③사목회(후8시)
- 지난주 봉헌금: 2,034,86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 완 규

1. 본당은 우리: 13일 후3시~14일 후3시, 회비-5,000원
강사-오재호,김태자 부부, 김강열,유경옥 부부
2. 예비자 인도 기간: 14일까지, LM단원은 1인1도
3. 신앙강좌 특강: 8일 후8시,중앙성당,본당출발-후7시30분
중말론 어떻게 이해해야 할것인가? 회비-1,000원
4. 제대회 월례미사: 12일 후3시, 회의-후2시, 새신자 환영함
5. 교도소 재소자 견진성사: 10일 후1시30분,후원회원과 함께
6. 회의: 꾸리아-오늘 후2시30분 자모회-10일 어머니 미사 후
7. 제초작업 및 청소: 11일 전10시, 작업도구 지참
8. 김품권대금 납부 독촉: 14일까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수승천 대축일 행사에 협조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884,510원 □ 교무금: 855,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사목회: 오늘 오후8시-신일APT 2동407호
2. 반모임: 동신-9일(화)야유회
3. 성모회: 다음 주일미사 후
4. 첫 영성체 교리: 15일(월)~26(금) 오후6시 대상-3학년이상 영성식-27일(토)어린이 미사
5. 금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송용례,김영우
차주전례: 이완자 독서·봉헌: 안귀례, 조규명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사목회장 이 동 심

※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

1. 안나회: 오늘 공식미사 후(12시) 교육관
2. 구역봉사자 야외회: 10일(수) 오전9시30분 출발
(중식은 각자 지참바람)
3. 첫 영성체: 13일(토) 오후3시
4. 자모회: 다음주 17일(수) 오전10시30분
5. 성모회: 다음주 17일(수) 오전11시
※ 오늘 용머리 본당을 위한 2차헌금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71,390원 □ 교무금: 1,621,000원

*** 효자대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덕 도

1. 성전건립추진위원 피정: 13(토)~14(일)천호성지 2. 모임: ①꾸리아-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8(월)10시 ③성모,자모,성심회-12(금)어머니미사 후 3. 혼인조당자 사무실에 신청바람
4. 6월천교모임(반모임): 부부동반하여 특별히 뜻있는 나눔부탁
5. 가정방문: 11(목)2:00삼호1반, 12(금)2:00삼호2반
차주모임: 용드레아 신축헌금 봉헌액-100,000원
- 금주전례: 해설-김홍두 독서①조세영 ②박관자
미사봉헌안내-김준태 부부, 김상권부부
- 차주전례: 이한은 독서①김용신 ②이정윤
미사봉헌안내-김현규 부부, 김상섭부부
- 지난주 봉헌금: 1,017,110원 □ 교무금: 912,000원